

국민의힘 32명 광주·전남 제2지역구 맡다...서진 전략 '시동'

광주 장제원·하태경·김은혜·김용판·김예지 등 8명 전남 김도읍·황보승희·이만희·이달곤 등 24명 배정

국민의힘이 23일 '호남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시작하는 등 호남 구애에 본격 나섰다.

2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당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열고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 직후부터 5·18단체 간담회, 호남 현장 비대위 및 호남동행국회의원단 동행 지역 방문, 각 지자체별 현안 및 예산 간담회, 영·호남 공동추진사업 발굴 등을 차례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2의 지역구를 갖게 된 국민의힘 의원은 총 48명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은 32명이 배정됐다.

광주는 윤영석·장제원·이채익·윤재욱·하태경·김은혜·김용판·김예지 의원 등 8명이 각각 제2의 지역구를 맡는다. 전남지역은 여수 김도읍·하영제, 순천 김웅·김영식, 목포 김기현, 나주 김형동, 광양 배현식 의원이 지역구를 책임진다.

군 지역의 경우 담양 이영, 곡성 황보승희, 구례 전봉민, 고흥 권명호, 보성 이명수, 화순 이만희, 장흥 임희자, 강진 서정숙, 해남 강대식, 영암 최승재, 무안 엄태영, 함평 정희영, 영광 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호영 원내대표,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호남동행국회의원 발대식에서 동행지역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범수, 장성 조해진, 완도 김성원, 진도 이달곤, 신안 윤두현 의원 등이 지역구를 책임지며 활약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호남에 지역구 의원이 없는 만큼 타 지역 의원들이 호

남 지역구를 맡아 내 지역구처럼 챙겨 주기로 한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은 광주전남 제2 지역구에 대

해 현안과 예산을 챙기게 된다"면서 "앞으로 외연확장을 위한 다양한 기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자진 탈당 "당에 부담 안주고 결백 증명"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들에게는 큰 마음의 빛"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불거진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수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의혹과 이에 대한 여당, 다수 언론의 근거 없는 비방과 애국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후된 농촌,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거친 풍파를 견디는 당을 걱정하며 나름 소신으로 씬 없이 달려온 8년의 의정활동이었다"며 "저는 지난 5년간 국토위에서 의정 활동을 했지만 건설업계 고충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한 것이지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일이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에 들어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올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며 "현 정권의 부정부패가 정적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국민과 당원 동



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최근 의혹은 제 개인의 결백과 관련된 문제이기엔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 당에는 큰 마음의 빛을 쬐자는 생각"이라며 "비록 당에 무거운 짐을 싣기 싫어서 당을 떠나지만, 그 마음의 짐은 제가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 비로소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반드시 이겨내겠다. 지켜봐달라"며 "충북 동남4군 주민 여러분을 생각하는 제 마음은 여전히 변함 없으며 언제나 그랬듯 주시는 사랑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김종인, 4차 추경으로 협치 첫발...문제는 '공수처'

추경 합의 처리...민주당, 법 개정 추진 본격화 김종인 '협조'에도 이낙연 "법 개정도 절차대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협치'가 비교적 성공리에 첫발을 뒀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역대 최단시간 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여야 사령탑의 막후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매듭을 푸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제1차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추호영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통신비 지원 범위를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남은 재원을 야당의 요구였던 중학생 학습지원금 15만원, 취약계층 독감 백신 무료접종 예산으로 돌리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여야 협치가 첫 결실을 이루면서 향후 정기국회 과정에서 코로나 관련 민

생지원 입법, 공정경제3법 등에서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공수처 출범 문제다.

공수처는 지난해 초 패스트트랙 정국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여야 간에 해묵은 쟁점이다. 민주당은 역점 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의 4+1 공조를 밀어붙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까지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에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래 초유의 불협 사나운 몸싸움이 벌어졌고, 쌍방간에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15일 공수처 출범 시점을 넘긴 뒤 두달이 지나도록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러지지 않아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중 각 2명씩 배정된 여야후 추천위원을 국회로 4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



자다.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자당 몫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는 데 대한 압박카드인 셈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 출범 시점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인 '11월 중'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김종인 위원장이 자당 몫 후보추천위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개정 추진은 이어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낙연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한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우리는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갈 것"이라고 개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이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인 만큼 야당의 비토권은 여전히 살아있어 기존 법대로는 연내 공수처 출범이 불투명하다. 김 의원 개정안에는 후보 추천 요건을 6명에서 5명 동의로 낮추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야당 몫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야당 내부 기류도 여야 협치를 둘러싼 주요 변수다. 김 위원장과 원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당명과 당색, 정경정책 변경과 공정경제 3법 등에서 보이는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와 독선적 담운영에 대한 불만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